

# 주간기도정보

2024. 4. 1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총선 이후, 교회가 각성하고 악법 저지 동참해야’

차별금지법 반대 앞장서 온 교계 인사들, 22대 국회 악법 제정 시도 우려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나왔다. 해외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차별금지법과 이미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등의 발의를 내건 당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등의 관계자들은 그간 지속돼 온 악법 제정 시도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을 염려하며, 다시금 결의를 다졌다.

거룩한 방파제의 준비 위원장으로 총선을 위한 국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특강 등을 이어온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를 많이 했던 당의 분들이 대대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각성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역·교단 구별 없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태아와 생명을 위한 법이 속히 제정되길 바란다. 또 가정과 성윤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매진해야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깨어나야 한다”며 “교과서 문제도 바르게 해야 하는데, 학생인권법도 국회에서 만들겠다 하는 상황이니 성도와 학부모, 남녀전도회가 더 앞장서 건전한 성윤리와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다.

진평연의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총선 결과가 염려된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악법이 많이 나왔었다. 이번에도 악법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4년 동안 열심히 막아야겠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악법들을 발의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거룩한 방파제가 기도하면서 악법을 힘써 막아내야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더 바르게 잘해야겠다”고 했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각종 악법에 대응해 온 주요셉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고 악한 법을 제정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끝까지 반대하고, 세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잘못된 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변함없이 표출하고 거리에서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으로, 잘못된 법을 만드는 세력과 싸우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기도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적극 동참하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에스겔 39:25)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 후서 10:4-5)

하나님, 4년간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 이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22대 국회를 바라보며 여러 염려스러운 상황에 놓였으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의 명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사랑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 어둠에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일하여 주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 북한 성도, ‘굶주려 죽던 삶에서 하나님 만나 행복한 삶 살아’

북한 지하교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유혹에 직면하고 똑같은 은혜로 이겨낸다



!도: 아버지의 죽음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살지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위와 같은 고백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전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북한 지하교인들은 자신들이 우리와 똑같은 유혹에 직면해 있고, 똑같은 은혜로 그 유혹을 이겨낸다고 말한다”면서 일부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최고의 신앙 영웅이나, 도움이 절실한

매우 약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년 넘게 북한 지하교인들과 동역하며 성경을 전달하고 있는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북한 지하교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서 지하교인들이 보내준 편지 일부를 발췌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믿음의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는 데서 건져 밝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받기만 하는 죄스러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길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전에는 눈물겹도록 사랑을 하다가, 외로움 때문에 아프도록 울고, 굶주려 죽는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매년 북한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 3만 권에서 4만 권을 인쇄본 및 전자 성경 형태로 북한 내부 주민뿐 아니라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들과 외화벌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지하교인은 직계 가족 이외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건물이나 목회자나 신학교를 가질 수 없지만 그분들은 성경을 갖고 성경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돌봐주신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애굽기 15:2)**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30-31)**

하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몸 된 지체인 북한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신앙고백에 감격하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와 그 말씀에 이들을 의탁하오니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시고 빈들과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부의 핍박과 횡포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북한 주민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일한 생명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성경이 더 많이 전해지도록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의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영광으로 인도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한가협·에이랩 ‘성경적 성교육’ 43기, 사상 최대 규모로  
성경적 건강한 성 가치관 교육, 생명과 가정 중시 강사 양성해



(사)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가 주최하고 에이랩아카데미(이하 에이랩)가 협력하는 ‘정품 성경적 성교육 강사’ 43기 중 12주 양성 과정이 지난 4월 6일 개강했다.

왜곡되거나 경도되지 않은 정통 기독교 성교육으로 자리매김한 에이랩아카데미 성교육은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공과 교재 및 가이드라인 서적,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찬양과 율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 시기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받으면,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편향된 학생인권조례, 성적 자기결정권 등 교육 현장에서는 동성애와 미성년 시기 성행위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내 몸은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무엇보다 현재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명을 경시한다는 점”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는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배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랩 성교육을 수료하고 강사로 활동 중인 김다정 전남·광주 지부장은 “다음세대를 인도하기 전, 크리스천 양육자들이 먼저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탑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성교육은 특성상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초·중·고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에서는 인체 특정 부위, 성행위와 동성애 등에 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교육 도서들이 비치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등을 통해 스며든 잘못된 성 인식들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했다.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레 인본주의적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문화 명령 망각, 음란물 범람 등이 차세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성경적 성교육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7-58)**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한일서 2:17,24-25)**

하나님, 현재 시행되는 잘못된 성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밀려오는 왜곡된 성 인식들로부터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진리로 무장하며 싸우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경시함으로 인해 성적 타락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실체를 십자가 복음으로 밝히사 죄로 무더진 심령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사 동일한 생명과 가치관을 지닌 믿음의 차세대들이 견고히 자라나게 하소서. 들려진 말씀이 다음세대 안에 거하여 지나갈 세상과 정욕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